



제목	Sufis, Princesses & Dervishes, Martyrs & Feminists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CreateSpace Independent Publishing Platform
발행일	2014. 8. 19.
저자	Rabi'a of Basra, Rabi'a of Balkh 외 Paul Smith(번역자)
출판국가	오스트레일리아
페이지수	436
ISBN 또는 ISSN	978-1500858643

**내용 요약**

『수피, 공주들과 금욕주의자들, 순교자와 페미니스트』에서 저자들은 중동과 아랍, 페르시아 출신의 위대한 여류 시인 10명을 소개한다. 바스라의 라비아(Rabi'a of Basra, 8세기)는 수피즘의 가장 위대한 성도이자 수피 창시자 중 한 명으로 간주되고 강력한 영적 작용에 관한 시를 아랍어로 썼다. 발흐의 라비아(Rabi'a of Balkh, 10세기)는 아프가니스탄의 공주였는데, 아버지의 노예를 사랑함으로써 몰락의 길을 자초했다. 그녀는 감옥의 벽에 피로써 많은 시를 썼다.

마사티(Mahsati, 12세기)는 니자미와 오마르 하이얌을 알고 있었고, 술탄 산자르(Sanjar)의 법원 시인으로서 그녀의 스캔들로 인해 혁명이 일어나기도 했다. 랄라 데드(Lalle Ded, 1320~1392)는 카슈미르 출신의 유명한 여성 시인인데, 지금도 카슈미르에서는 그녀의 시를 읊는 사람이 많이 있다. 자한 하툰(Jahan Khatun, 1326~1416)은 시라즈의 아름다운 공주였고 하피즈의 친구이자 제자였다. 아이샤 알 바우니(Aishah al-Ba'uniyah, 1457~1517)는 아랍어로 시작(詩作)을 한 훌륭한 수피 시인이자 정신적인 대가이다. 수피즘과 계몽에 관한 그녀의 시는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마흐피 또는 제부니사(Makhfi or Zeunissa, 1638~1702)는 인도 황제의 딸이었는데, 그녀의 수피 사상으로 인해 결국 투옥되어 고문을 당했다. 그녀의 시는 깊고, 강력하며, 영적인데, 그녀의 시를 읽으면 때로 가슴이 아프다.